

Menthol, 연일 "최고가" 갱신

천연멘톨 25~27달러 ... 합성멘톨 20~22달러에 거래

국내 멘톨가격이 생산지의 흉작으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6년5월 현재 천연멘톨 가격은 CIF기준 Kg당 25~27달러에 거래되는 등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분	1993	1994		1995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수 입	1,846	2,941	59.3	3,128	6.4
생 산	-	-	-	313	-
계	1,846	2,941	59.3	3,441	17.0

이것은 93년 10~11달러, 94년 20~25달러에 거래되던 것과 비교해보면 100%이상 상승한 것이며, 95년초 24~25달러에 거래되던 것과 비교해 보아도 꾸준한 상승세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가격상승은 주생산지인 중국과 인디아의 작황부진 때문으로, 현재는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과 맞물려 재배면적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마저 있어 멘톨 수입가는 당분간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합성멘톨 가격도 93년 7~8달러, 95년 18~20달러에서 96년5월에는 20~22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천연멘톨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더불어 상승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멘톨 수요기업들은 멘톨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따른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제과용은 멘톨가격이 30달러선을 넘어설 경우 향질이 더 우수하나 고가이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해 왔던 민트오일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멘톨가격은 30~4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민트오일 고급그레이드 가격이 40달러, 저급그레이드 가격이 3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대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9월에는 중국과 인디아의 추수로 물량이 대폭 증가, 공급과잉으로 95년7월과 같이 일시적인 가격하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멘톨의 국내수요는 94년 200톤에서 95년 240톤으로 증가했으며, 96년에는 정제내지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국내 멘톨시장이 성숙기에 이른 때문이다.

멘톨의 용도별 수요는 파스·카타프러스마·맨소래담 등의 소염·진통제 원료로 쓰이는 의약품이 50%, 껌과 치약 등에 쓰이는 구강용이 40%, 담배·특수샴푸 등 기타 10%로 나타났다.

기업별 수요현황을 보면, 제약기업으로는 상아제약이 연간 25톤, 제일약품 20톤, 현대약품 14톤, 대일약품 17톤, 영진약품 18톤 등이며, 껌용은 롯데제과 1톤미만, 해태제과 6톤 등이고, 치약용으로는 LG화학 20톤, 태평양 10톤 등이다.

멘톨의 국내공급은 93년 147톤에서 94년 180톤, 95년에는 66.6% 증가한 300톤으로 나타났다.

특히, 95년 공급증대는 모빌코리아가 국내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멘톨을 생산·공급한데 따른 것으로 95년 20톤을 생산했으며, 96년에는 60톤으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